2015년
6월 2일 화요일

NO.394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수도권본부-궤도 협력사, '안전 · 청렴' 결의 다져

-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로 소통의 장 마련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5월 15일(금)에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5개 사업의 본격적인 궤도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궤도 협력사(감리단 및 시공사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고품질 철도건설을 위한 '안전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시행하였다.

수도권본부는 안전결의대회를 통하여 궤도공사 유형별 안전사고사례 및 안전예방활동을 공유하여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철도 네트워크 실현을 위해 관내 궤도분야 전 현장의 안전결의를 다지면서, 아울러,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궤도 협력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공단의 윤리경영체계를 소개하는 등 공단과 협력사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김영하 수도권본부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차운행선 안전사고 및 추락, 전도 등 사고예방하고 투명한 철도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 수인선 송도~인천 복선전철 사업과 정자~광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로 2016년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공단,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사' 2015년말 공사완료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인천시 영종도와 영종하늘신도시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영종역사 건설공사가 공정율 4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은 청라국제도시역과 운서역 사이에 지상3층(1층 : 기능실, 2층 : 역무지원실, 3층 : 대합실) 연면적 1,743㎡ 규모로 신설될 예정으로, 특히, 영종역사 건설구간은 공항철도와 KTX 차량이 약12분 간격으로 빈번히 운행되어, 열차운행이 종료되는 새벽시간(01:00 ~ 04:30)에만 대합실 철골공사가 가능해,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공정율 41%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철도공단은 올해 6월부터 개통 전 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종도의 옛 지명인 자연도의 제비를 형상화한 철도역사 건물로 지역이미지를 살렸으며,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8대를 설치해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승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승강장에 설치한다.

본부 관계자는 "영종역이 개통되면 그 동안 인근역을 이용했던 영종하늘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참고1. 영종역사 조감도

참고2. 영종역사 공사 현장 전경사진

철도공단,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 용지보상 착수

- 건설현장 인근에 '용지보상협의사무실' 개설, 5월말부터 토지보상절차 진행 계획-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용지보상 협의사무실을 개설하고, 5월말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총연장 20.87km)은 총사업비 3천82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단선 비전철 철도노선을 단선 전철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동두천~연천간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촉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본부가 위치한 서울시내가 아닌 사업구간인 경기도 연천시에 보상협의사무실을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편리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산업의 미래 '신입직원 공개채용'

- 5월15~26일까지 원서접수.. 6월30일자 임용 예정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여 2015년도 신입직원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정보보안전문가, 교통수요분석전문가, 영문에디터 (통 · 번역),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경력직 직원과, 대졸수준 및 고졸자 대상 채용형 인턴사원으로, 채용형 인턴사원은 임용 후 3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9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 필기 · 면접전형을 거쳐 2015년 6월 30일자로 임용할 예정으로,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홈페이지(http://kr.trn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력직 지원자격은 채용예정분야 관련 자격 및 경력보유자이며, 대졸사원은 공인어학성적 TOEIC 750점, TOEFL IBT 85점, TEPS 597점, JPT 750점, 新 HSK 5급 195점 이상, 고졸사원은 최종학력이 고졸(예정)인 자에 한하고 토목직은 기능사보이상 자격소지자이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하여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분야별 NCS기반 직무기술서를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기존 인 · 적성 검사와 면접전형을 NCS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채용 전반에 걸쳐 NCS기반 채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별 ·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강영일 이사장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에 함께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네이버, '공공정보 제공 및 자료이용' 협약 체결

- 정부3.0에 발맞춰 8천여건의 철도관련 콘텐츠 서비스 개시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과 네이버(대표 김상헌)는 5월13일(수) 공단 본사에서 '철도산업정보센터 공공정보 제공 및 자료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철도공단은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도용어, 철도역정보, 차량도감, 국가별철도 현황, 한국철도의 역사 인물, 철도유물, 철도연표 등 8천여 건의 철도관련 콘텐츠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고, 제공된 콘텐츠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네이버의 지식백과를 통해 6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네이버와의 협약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정보 활성화는 물론 철도산업발전이 한 단계 도약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철도산업정보센터는 2011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철도관련 종합포털 시스템으로, 5만 여건의 철도전문 자료와 21만 여건의 철도관련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직원가족초청 직장문화체험 행사' 진행

- 어린이 미래CEO체험, 공주 도예촌 방문 등 다채로운 행사로 호응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일과 삶의 균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직원가족 40여명을 초청해 '건강한 직장,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직장문화체험 행사를 시행했다.

첫째 날에는 어린이들이 공단 이사장실을 방문해 회의 테이블과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장래희망을 말하는 등 미래 CEO 체험을 해보고, KR홍보관을 방문해 철도건설 전시물과 4D영상을 관람하면서 부모 직장에 대한 이해와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공주 도예촌을 방문해 가족단위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가족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대천 레일바이크 체험, 석탄박물관 관람, 개화예술공원 산책 등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함께 참여한 직원과 동료애를 다지고 가족간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행사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소감에서 "아이들을 아빠 직장으로 초대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유대감을 느껴 좋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 자녀는 "이사장님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가서 책상과 의자에 앉아 봤는데 내가 이사장이 된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다."며, "아빠와 함께 머그컵 만들기도 재미있었고, 레일바이크도 신나고 재미있게 탔다."고 소감을 얘기했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R을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가정친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1년부터 연 2회 직장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동료애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직원 자녀들에게는 부모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도공단, 「나덕성 교수와 떠나는 첼로 음악회」 개최

- 귀와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 실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5월 29일 오후 4시,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나덕성 교수와 떠나는 첼로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첼로의 대부 나덕성 첼리스트를 초청하여 제10회 KR 공감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KTX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4월2일), 호남고속철도(4월2일) 개통에 이어 장항선 2단계 철도건설(4월29일) 및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5월22일) 등 국민들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형성하는데 보탬을 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공감콘서트에서는 바흐의 무반주첼로 모음곡, 슈만의 트로이메라,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등 주옥같은 음악이 나덕성 선생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로 꾸며졌으며, 중간 중간 음악과 인생에 대해 진솔한 강연도 더해졌다.

공감콘서트에 참석한 직원은 "평상시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었으며, 소통의 첫 걸음이 말하기가 아닌 듣기와 마음임을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하면서, "앞으로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임을 넘어 마음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업무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한편, 공단 임직원에게 첼로연주를 선사한 나덕성 첼리스트는 현재 중앙대 명예교수와 한국첼로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꾸준히 연주도 하는 등 후학양성과 국내 음악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연자 프로필

나덕성 첼리스트
출생 : 1941년
소속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학력사항
1974 쾰른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석사

■ 경력사항
2013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심사위원장
2008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2007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2000 ~ 한국첼로협회 회장
1970 ~ 한국음악협회 평생회원, 이사
1984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981~1984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
1974~1980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조교수

■ 수상내역
2007 대한민국 근정포장
1993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1988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음악상
1979 한국 음악 펜클럽상
1965 제4회 신인예술상

철도공단,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맞춤형 조직개편!

- "철도시설관리자" 역할 강화, 남북철도연결 전담조직 신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맞춰 철도시설관리자 역할을 강화하고, 남북철도 연결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6월 1일 자로 시행했다.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공단이 이처럼 신속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앞으로 철도시설관리 등 핵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의 시설관리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본부에 "시설관리처"를 설치하는 등 현장 시설안전 관리조직 강화
- 철도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안전시설TF"를 신설하고, 17년까지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추진

* 철도공단의 시설관리권 설정범위를 기존 고속철도에서 일반철도까지 확대('14. 9. 4 철도산업위원회 의결사항)

② 한반도 철도망 구축, 유라시아 철도 연결기반 마련을 위해 경원선 등 철도 복원사업을 전담하는 "남북철도사업단" 신설

③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고속철도PM 조직과 인력을 서해선, 도담영천 등 신규 일반철도 사업으로 재배치

④철도 핵심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존 신호통신처를 "신호처", "전자통신처" 등 기술분야별 전문조직으로 개편

⑤ 유사성격의 지원조직을 통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 교육기획부 + 교육운영부 ⇒ 교육부, 재무전략부 + 재무관리부 ⇒ 재무부

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앞으로 철도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철도건설 · 투자 중심에서 노후시설 개량, 유지보수 감독 강화 등 철도시설관리

〈참고〉 철도공단 기능조정 방안 ('15.5.27 기재부 발표자료)

[건설 · 투자 → 철도시설관리자 역할 강화]

· 인력재배치 : 고속철도 건설인력 일반철도 분야로 전환
· 차량구매 : 차량구매 업무 철도공사로 일원화
· 시설관리자 역할 강화 : 일반철도에 대한 시설관리권 추가 설정, 노후 교량 · 터널 개량 등 시설개량 강화, 유지보수 감독 기능 강화
* 유지보수 서비스평가 시행('16), 위탁방식 변경(협약서 → 계약), 시설정보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 역세권개발 : LH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민간자본 활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설계 착수

- 서울시 마곡지구 개발에 맞춰 2017년 완공목표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은 서울시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마곡역 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해, 2017년 말까지 역사 건설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11일 서울시 · 공항철도와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마곡역 철도역사 신설을 추진해 왔다.

마곡역사는 공항철도 김포공항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사이 마곡지구일대에 위치하며, 현재 운행 중인 9호선 마곡나루역과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여 환승역사로 건설될 계획이다.

특히, 마곡역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곡 중앙광장(썬큰:Sunken1)),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대합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동선 및 공간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며, 역사설계 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과 태양광 · 지열에너지를 반영해 친환경 인증을 받아 설계할 계획이다.

1) 썬큰(Sunken) : '움푹 들어간, 가라앉은'의 뜻으로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부지.
- 예) 썬큰 리빙룸(거실), 썬큰 가든(공원) 등

또한, 철도공단은 안전한 승강장 구현을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화재와 범죄예방을 위한 피난안전구역, 안심대기구역 등을 반영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서울시, 공항철도)과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사업개요]

· 용 역 명 :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축 및 노반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2014~2018년(개통 2017년 12월)
· 총사업비 : 933억원(1단계 236억원, 2단계 697억원)
· 사업효과 : 서울시의 마곡지구개발과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마곡지구 입주민의 전철 교통편의 제공

서해선 복선전철 22일 기공식 ...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

- 홍성~여의도 1시간대로 연결, 서해안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을 22일 홍성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약 90km 구간을 신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 8,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해선 복선전철에는 기존의 새마을호에 비해 속도가 1.6배정도 빠른 시속 250km급 고속 전철(EMU-250)이 운행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 홍성~여의도간 : 신안산선과 연계하여 7개역 정차시 57분 소요, 신군산~홍성~여의도간 : 장항선 전철화, 신안산선과 연계하여 9개역 정차시 85분 소요

기공식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 · 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서해축이 구축돼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관광 · 물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힐 예정이다.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서해선 복선전철은 향후 장항선, 신안산선과 연결되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동력인 서해축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충남 홍성, 전북 군산 등 서해안 지역은 1931년 장항선이 개통된 이후 약 80여년간 제대로 된 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나,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됨으로써 교통난이 완화되고 물류비용 부담이 감소되어 전자분야, 제조업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어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 · 문화 관련 관광 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서해안 지역이 관광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1.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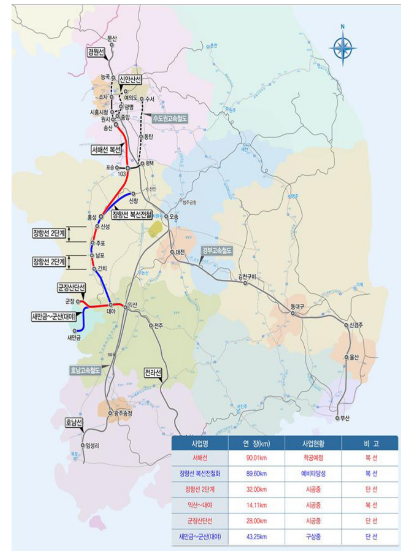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선 건설(90.01km)
□ 사업기간 : 2009년 ~ 2020년
□ 총사업비 : 3조 8,280억원

(단위 : 억원)

총 소요	2014년 까지	'15년예산	16년 이후
38,280	748	400	37,132

□ 추진경위

'07. 8.	: 예비타당성 조사(B/C 0.95)	'13. 9.	: 턴키공사 계약 및 착공(4,5공구)
'10. 12. 24	: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14. 10. 15	: 총사업비 승인
'11. 02. 15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4. 12. 22	: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11. 10. 07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5. 1 ~ 2	: 노반공사 입찰공고 (8개 공구)
'12. 12.	: 실시설계 완료	'15. 4.	: 노반공사 계약 (8개 공구)



사업명	연 장(km)	사업현황	비 고
서해선	90.01km	착공예정	복 선
장항선 복선전철화	89.60km	예비타당성	복 선
장항선 2단계	32.00km	시공중	단 선
익산~대야	14.11km	시공중	복 선
군장산단선	28.00km	시공중	단 선
새만금~군산(대야)	43.25km	구상중	단 선

참고2.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도

참고3.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관련 Q&A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공식행사('15.5.22)에 따른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ㅇ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접근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단축되게 되며,

* (현재) 장항선 이용 : 홍성역~영등포 1시간 49분
(향후) 서해선 활용시(신안산선과 연계하여 중간역 6개역 정차) : 홍성역~영등포 53분

ㅇ 충남도와 경기도 지역에 8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6천 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10개 공구에 연인원 10만 여명이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2. 서해선에 투입되는 EMU-250은 어떤 차량인가요?
ㅇ 서해선에는 시속 250 킬로미터로 달릴수 있는 동력분산식 EMU-250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ㅇ EMU-250은 동력분산식 열차이며, 동력 집중식 열차에 비해 승객 수송능력이 탁월하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서해선 뿐만 아니라 중앙선 등에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청본부, 공사현장 인근 농촌마을 찾아 일손돕기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은 5월13일(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세종시 전동면 심중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 날 KR봉사단 20여명은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통과지역이며 최근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중인 전동면을 찾아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주민고충을 청취하고, 과수원 복숭아꽃 솎기 작업과 잡초제거 및 채소 모종 심기 등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본부 관계자는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일손이 부족한 마을을 찾아 일손돕기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 대전소재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펼쳐

- 가정의 달 맞아 독거노인 거주지 청소 등 봉사활동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KR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27일(수) 대전시 어은동에 위치한 은혜요양원(원장 김향종)을 찾아 성금전달을 하고 청소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충청본부는 올해 4월 은혜요양원과 인연을 맺고, 가정의 달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쓸쓸히 보내는 노인들을 찾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노인들의 거주지 청소, 말벗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노병국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재능기부, 노력봉사, 청소 및 말벗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본부, 유관기관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2015년 안전한국훈련 기간인 21일 호남고속철도 광주차량기지에서 고속철도 대형사고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호남고속철도 KTX 제4001열차가 광주송정역 진입중 지진으로 탈선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해 신속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점검했고, 국민안전처,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광주시를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병원, 군부대 등 13여개 기관 350여명이 참여했다.

이현정 호남본부장은 "이번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고속철도 대형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본부 최광주 기자〉

호남본부, 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가져

-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참배 및 묘역 환경정화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5월29일(금)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묘역을 관리하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조국 수호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분들이 영면한 호국성지로, 호남본부 매년 정기적으로 참배 및 묘역관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호남본부 KR봉사단 10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헌화 꽃 교체, 태극기 꽂기, 묘비 닦기, 잡초제거 등 묘역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봉사단원들은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깨닫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도공단, 영덕~삼척 철도건설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 문화재 발굴용역 5건 낙찰자 결정... 5월말부터 시굴조사 본격 진행-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추진 중, 영덕~삼척구간(2단계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포항~삼척 건설사업(총연장 166.3km, 영덕~삼척구간 122.2km)은 총사업비 2조9,979억원을 투입하여, 환동해권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철도공단은 포항~삼척간 철도 개통으로 동해안권 관광통행 수요 분담 및 개발촉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문화재 시굴조사 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2018년 말까지 철도건설 공사를 완료, 주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본부, 『청렴거울』 나누기 캠페인 전개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전 직원 공감대 형성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5월29일(금) 오전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나를 비추는『청렴거울』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리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적 청렴실천 문화 조성을 통한 청렴도 일등본부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청렴! 당신의 얼굴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청렴거울은 직원 개개인의 책상에 비치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청렴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하여 '부패ZERO' 철도시설공단을 이뤄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권영철 본부장은 "영남본부는 매년 청렴특강, 청렴연극, 청렴사행시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실천이 생활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본부, '취약개소 종합안전점검' 시행

- 철도 · 도로하부통과 터널에 대한 침하여부 등 집중 점검-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도로 및 철도 밑을 통과하는 터널 등 취약개소에 대해 5월21일(목)부터 00일(00)까지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침하방지 종합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철도 · 도로의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과 터널 상단의 흙 높이가 낮은 구간(저토피)등 대표적인 취약개소의 침하여부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열차운행환경을 제공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중장비, 산사태 구간 등 관내 24개 현장의 취약개소도 함께 점검할 계획으로, 올해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대비대책 상황본부'도 운영한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이후에도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강원본부, 원주밥상공동체와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

-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은 5월 22일(금) 11:30 원주시 밥상공동체와 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 양 기관간에 연탄나눔 활동 협조 ▲ 양 기관 간의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연계 ▲ 기타 양 기관에서 협의한 사항 등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상호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약서 체결 후 강원본부 최정환 본부장은 KR봉사단 20여 명과 같이 이날 밥상공동체에 찾아오신 10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말씀과 함께 점심 등을 제공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의선 고양시 입체교차시설 추진 협의

- 고양시 부시장 면담, 공사 타절처리 최종 입장 전달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사업은 '14. 12월 효창공원앞역을 제외한 소구간 완전 개통되었으나, 본선구간 이외로 건널목 입체교차시설인 고양시 백마지하차도('07. 6月 착공) 및 삼성지하차도('07. 3月 착공) 시공중에 있다. 하지만, 이곳 2개소의 입체화교차시설 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대에 부딪쳐 장기간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다.

【집단민원 요구 주요요지】
* (백마지하차도) 건물 노후화로 지하차도 공사시 진동, 건물균열 등 피해 발생
* (삼성지하차도) 건물 노후화로 지하차도 공사시 피해가 발생되므로 공사추진 중단 요구, 건물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하여 공사 시행(재개발사업으로 병행 추진)

공단은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후, 고양시 요청으로 '백마지하차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주민 공사방해로 다시 공사 중단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정소송 계류중에 있고, '삼성지하차도'는 최근 주민간담회('15.4.1)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사 중지된 상태로 있다.

〈 '15.5.14 고양시 부시장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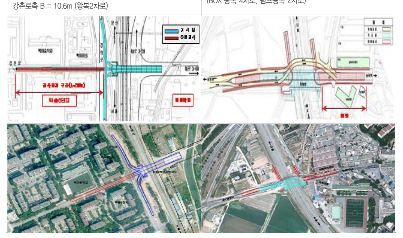
건설기술처(본부장 김영하)는 고양시 부시장과 면담('15.5.14)하여 경의선이 금년 완공하는 사업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소송 및 지장물(154kv 송전선로) 이설(18개월 소요, 이설비 40억원)'로 년내 완공이 어렵고, 고양시에서 지하차도 연결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시 잔여분에 대해 동시 추진하도록 공단 최종 입장을 전하였다.

〈수도권본부 김한묵 기자〉

〈참고자료〉

【백마 및 삼성 지하차도 시설 현황】

백마지하차도	삼성지하차도
전체 L=760.0m / BOX L=270.0m, U-TYPE(165.0m), 진출입 램프 (325.0m) B=27.2m(BOX 왕복 4차로, 램프왕복 2차로), 강촌로측 B = 10.6m (왕복2차로)	전체 L=240.0m / BOX L=58.0m, U-TYPE L=182.0m, B=21.4m (BOX 왕복 4차로, 램프왕복 2차로)



수도권본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품질관련 특별교육 실시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5월21일(목) 본부 강당에서 친환경 철도건설과 '15년도 무재해달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수도권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품질관리』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관내 소규모 현장에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을 선발하여「안전 · 품질 지키미」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품질관리』직원역량강화 특별교육은 오랜기간 철도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시공단계부터 구조물관리까지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품질관리 교육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직원들의 역량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날 선정된 소규모 건설현장의「안전 · 품질 지키미」들은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의 2015년 무재해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본부 박상율 기자〉

품질관리 특별교육

안전 · 품질지키미 임명장 수여

수도권본부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개

- 파주시 교남어유지동산 자매마을 -

수도권본부는 2015년5월7일 자매마을인 교남어유지동산에서 40여명이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고추모종을 정성스레 심으며 구슬땀을 흘렸고, 고추가 잘 자라서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했다.

수도권본부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 마을과 2014년부터 결연을 맺고, 장애인들의 영농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봄 · 가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결연마을과 교류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공예 ·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 제1차 인사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

수도권본부는 지난 5월 20일, 조직문화 활성화(Boom-up) 계획의 일환으로 제1차 공예 ·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체험을 통해 부서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간 기획의 첫 번째로 인사동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1차 프로그램의 참여부서인 사업지원부 직원들은 체험을 마치고 "평소 익숙하게만 보아왔던 인사동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어 좋았다.", "부서원들과 업무 외적으로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수도권본부는 직원들의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Boom-up)을 위해 분기에 한 번, 1~2개 부서를 선정하여 다양한 공예 ·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이대원 기자〉

수도권본부 철로변 소외계층 어린이 도서후원

- 용산구 생명나무지역아동센터 외 1개 기관 도서기증 -

수도권본부는 지난 5월 8일 용산구에 소재한 생명나무지역아동센터, 빛나라공부방지역아동센터 2개 기관에 200여권의 어린이 도서를 기증하였다.

동아일보에서 추진하는 도서후원 캠페인「주는 기쁨 읽는 즐거움」과 연계하여 시행한 이번 도서기증은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공단의 교육기부 실천이라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며, 도서를 기증받은 빛나라공부방에서는 아이들이 기증받은 과학책을 흥미롭게 읽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수도권본부는 도서기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지 기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송정미 기자〉

직원가족초청 직장문화체험 행사 개최

- 미래CEO체험, 공주 도예촌 방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펼쳐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일과 삶의 균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직원가족 40여명을 초청해 건강한 직장,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직장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첫째 날에는 어린이들이 이사장실을 방문해 회의 테이블과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장래희망을 말하는 등 미래CEO 체험을 해보고 KR홍보관을 방문해 철도건설 전시물과 4D영상을 관람하면서 부모 직장에 대한 이해와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주 도예촌을 방문해 가족단위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가족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대천 레일바이크 체험, 석탄박물관 관람, 개화예술공원 산책 등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함께 참여한 직원과 동료애를 다지고 가족간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행사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아이들을 아빠 직장으로 초대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회사 동료들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유대감을 느껴 좋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 자녀는 "이사장님방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의자에 앉아 봤는데 마치 내가 사장이 된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다른 직원 자녀는 "공주 도예촌에서 아빠와 함께 머그컵을 만들었는데 모양이 이쁘게 나와 좋았고, 레일바이크를 처음 타보는데 힘들었지만 아빠와 함께 라서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 공단은 2011년부터 연 2회 직장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는 애사심과 동료애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직원 자녀들에게는 부모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협력을 유도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영노무처는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R을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가정친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지원실 오희진 기자〉

충청본부, 서해선 5공구 안전기원제 개최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지난 5월 14일 15시 서해선 5공구 현장에서 서해선 5공구의 무재해 달성과 적기개통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안전기원제에서는 충청본부장을 비롯한 공단관계자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안전기원제에 앞서 현장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함께 진행한 노병국 충청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이므로,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작업 전 · 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경기 화성을 잇는 총 연장 90.01㎞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8천억원을 2020년까지 투입하게 되며, 완공 시 경부선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철도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서해안 축 남북 종단 간선철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본부 안세한 기자〉

개통대비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 실시

- 대전도심통과구간 KTX열차 화재발생 비상대응 훈련시행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5월 27일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인 마성터널에서 개통대비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에 참여했다.

철도공사, 옥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KTX열차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인명구조 · 대피 및 화재진압, 열차 구원 등 골든타임 내 인적 ·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 초동조치의 일환으로 119신고 및 인명구조 · 대피 등 사고보고 체계대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섬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KTX열차를 디젤기관차로 연결,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순서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7월중 개통할 경부고속철도 대전 · 대구도심구간 사업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개통 후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본부 윤정일 기자〉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호남본부, 선로변 넝쿨장미 정리 등 환경정비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5월 21일(목) 제3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를 앞두고 순천시 조곡동 인근 선로변 및 장대공원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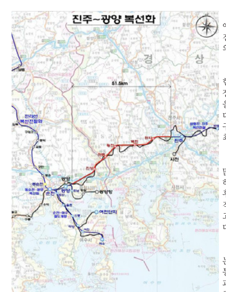
이날 봉사활동에는 공단 직원 15명과 노인복지시설 예광마을 직원 5명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2012년 철도공단에서 식재한 넝쿨장미 250그루에 대한 가지 정리와 장대공원 주변의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하여 영화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정원도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향후 공단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순천역 주변과 동천, 순천만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정원도시 순천을 가꾸는데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본부 관계자는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인 순천역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해 정원도시 순천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호남본부 최광주 기자〉

호남본부, 진주~광양 철도건설사업 안전결의대회 실시!



참고.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사업 노선도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5월 21일 경전선 진상역에서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전기분야 사업의 무재해 무사고를 다짐하는 안전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안전결의대회에는 호남본부 직원을 비롯하여 현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고, 하삼호 건설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정부가 선포한 안전혁신 원년의 해에 발맞춰 다함께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사고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공단의 안전의지를 밝혔다.

진주~광양 복선화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곡선이 많은 단선 철도(66.8km)를 복선으로 개량화(51.5km)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78%로 노반공사에 이어 후속분야(궤도, 건축, 전력, 통신, 신호)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말 본선공사를 완료하고 시험 및 시운전 등을 거쳐 2016년 개통할 예정이다.

진주~광양 복선화사업이 개통되면 열차를 이용하는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40분 단축되어 남해안권 통합생활권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호남과 영남의 지역교류 및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본부 황석규 기자〉

영남본부, '소골과선교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 시행

- 소골과선교 본격공사 착공 전 무재해를 위한 안전결의대회 시행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5월 21일 울주군 온양읍 보곡1길 일원에서 소골과선교의 본격적인 공사 전 착공식 및 무재해를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시행했다.

이 행사는 무사고 안전 기원제례, 무재해 기원 안전결의문, 무재해 구호제창 식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국회의원 강길부의원, 영남본부 본부장 외 다수의 현장 관계자 및 온양읍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를 통하여 울주군 온양읍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소골과선교 건설공사의 완공시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하였다.

이 날 "무재해 무사고로 안전철도 건설한다."는 철도인의 강한 의지가 옹양읍을 넘어 먼 곳까지 울려 퍼졌고, 무재해 활성화와 무재해 운동의 정착에 기여하였다.

〈영남본부 윤영호 기자〉

「안전결의대회」 결의서 낭독

「착공식 및 안전결의대회」

영남본부, '철도실무협의회' 개최

-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5월 28일 한진해운빌딩(부산 중앙동 소재) 7층 상황실에서 공단/공사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부산지역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공단 안건으로는 개통 전 철도시설물 관련 인계인수 항목 정립, 부전역 단계별 시공에 따른 임시배선 승인 협조, 일광역 정거장 배선 검토 등이 있었으며, 공사 안건으로는 동해남부선 승강장 내 고객대기실 설계반영, 사고예방을 위한 ATS지상장치 추가 설치, 철도건설사업 편입부지 사전협의 요청 등이 있었다. 도출된 안건은 본사협의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안전관리, 열차운영 및 철도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 상호협력과 신뢰형성의 기회를 가졌다.

〈영남본부 최영환 기자〉

부산지역 철도실무협의회

부산지역 철도실무협의회

철도공단, 2015년도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전개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4월30일(목) '2015년 춘계 체육행사의 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원주천 사랑하기 환경정화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춘계 체육행사를 활용하여 전 직원들이 원주천 풍물시장 주차장에서 단관공원까지 약 3.6km 구간의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 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원주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강원본부는 그동안 매월 원주밥상공동체 무료급식 봉사활동 및 소외시설 기관인 안나의 집 등 사랑과 온정이 가득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병행하여 체육행사의 날임에도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이번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이러한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본부 조득호 기자〉

주요기사(2015. 5. 14~31)

2015. 05. 14. (목)
◈ 철도 관련 정보 8000여건 네이버 통해 제공(경향신문14A, 충청투데이4)
◈ 철도공단 신입직원 공개 채용(중도일보4)
◈ 농번기 일손 보태기(중도일보13)
◈ 송정 · 익산역 이용객 60% 급증 … 여수 호텔 주말 '만실'(한국경제30)
◈ 400억 들인 KTX공주역 하루이용객 400명(내일신문4)
◈ 탱크도 다니는 공사 현장에 '불량 복공판'(서울신문10)
◈ 안전 논란' 3년째 개통 못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경향신문14A)
◈ '임금피크+청년고용' 땐 2명 年1080만원 지원(조선일보1)
◈ 公共부패 신고 포상금 2억원으로 올려(조선일보5)
◈ 임대주택 관리, 민간에 개방(중앙일보4)
◈ [사설]춘천~속초 고속철 추진 여부, 연내 결말내야(강원일보7)
◈ '국방메카' KTX논산훈련소역 세워야 안보복지 가속도(충청투데이8)
◈ 필라델피아 열차 전복 … 200여명 사상(국민일보9)
◈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 파라과이서 수주 활동 펼쳐(아시아투데이, 뉴스1)
◈ 철도공단 '법정관리 경남기업 참여사업 정상화'(연합인포맥스,이투데이,연합뉴스)
◈ 국토부 관피아 위력...12개 건설단체 장악(연합뉴스)

2015. 05. 15. (금)
◈ 폐 철도시설이 관광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끈다(조선일보E02)
◈ X축 고속철도망,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 실현에 기여(조선일보E07)
◈ 롯데그룹, 울산에 대규모 투자 연이어 추진(경상일보2)
◈ 박수현 KTX공주역 개통기념 철도시설공단에 감사패(충청투데이5,대전일보4)
◈ 광양만권행정協, 정부에 지역현안 해결 건의(광남일보2)
◈ 곡선구간서 '시속 171㎞ 질주' 美열차 탈선… 승객 7명 사망(문화일보13)
◈ 3호선 모노레일, 대구 교통관광지도 바꾼다(동아일보18C)
◈ 수십년간 방치된 폐선부지 명품공원 변신 주민품으로(경상일보27)
◈ 60세 정년 더 늘릴 수도 없고…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골머리(중앙일보16)
◈ 경남기업 법정관리 도내 철도공사 영향 없다 진주~광양간 복선전철 7공구 공정 98% 차질 없을 듯(경남일보)
◈ 600조원 인도 철도 시장을 선점하라(뉴스토마토)
◈ 중국-브라질 국영은행, 500억달러 인프라 투자펀드 조성(연합뉴스)

2015. 5. 18. (금)
◈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경남 서부 개발 탄력 (서울경제33)
◈ 경기도, 국비 1조8845억 지원 요청 (파이낸셜뉴스27, 경기일보1)
◈ KTX 송정역 교통 · 주차 · 편의시설 보강 (무등일보5, 전남일보2, 광주일보2)
◈ 이낙연 지사 'KTX 2단계 조속 추진해 달라' (무등일보5)
◈ 익산 고속철 이용객 늘었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 아직 미미 (전북일보8)
◈ 태화강역 연구용역서부터 신축 배제 (경상일보7)
◈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기술 "스고이" (경북일보6)
◈ 공무원 - 민간기업 직원 교환 근무 가능해진다 (서울경제2)
◈ 스웨덴 고속철에 한국기업들 참여해달라 (매일경제33)
◈ 한달뒤 朴대통령 남미 순방길 따라간 中리커창 (매일경제8)
◈ 실업자된 철도 폐노선 · 터널, 지역 관광상품 변신 (뉴스1)
◈ 철도공단, 직원가족초청 직장문화체험 행사 가져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아시아뉴스 통신, 국제뉴스, 중도일보)
◈ 철도공단,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로 소통의 장 마련 (아시아투데이,대전투데이,아주경제)
◈ 잇따른 건설사 구조조정 · 파산 여파에 공공공사 '차질' 우려 (아주경제)
◈ '호남KTX개통' 광주송정역 현안해결 종합대책 추진 (NEWSIS)

2015. 05. 19. (화)
◈ 서울 마곡역 신설 … 2017년 말까지 준공(한국경제28,인천일보2)
◈ 옥천 고속철도 폐선구간 레일바이크 추진(충청투데이16A,중도일보16)
◈ 분당 - 수서 도시고속道 공사 차질(인천일보02(경기판))
◈ 전라선 고속철 등 4가지 현안 공동건의(광주일보11)
◈ 홍도보도육교 8월 철거(중도일보1)
◈ 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올해 넘길듯(대전일보2)
◈ 파리 '고가 공원' 만들 때 벤치 수까지 시민에게 물었다(중앙일보10)
◈ 경인전철 전동차 바퀴 고장 '스톱' … 긴급 수리(경향신문14)
◈ 공공기관 등 56곳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서울신문10)
◈ 고속철 노선변경 소문… 쓰촨서 5만 명 시위(중앙일보19)
◈ 韓 · 印度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조선일보1)
◈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원 자녀 대상 '미래 CEO 체험' 행사 실시(아시아투데이)
◈ 마곡지구 개발 한창...'인천공항철도 마곡역사' 2017년 완공 (news1,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파이낸셜,서울경제,국토일보,대전투데이,OBS)

2015. 05. 20. (수)
◈ 인천 영종역사 올 연말 완공 예정(파이낸셜뉴스25,인천일보18)
◈ 서해안복선철도 신설역 이름 삽교읍 주민 "충남도청역으로"(서울신문14)
◈ 철도공단, 서울 마곡역 설계 착수(내일신문15)
◈ 소사-원시선 선부역 터널 공사 주민 애로 해소 실마리 찾았다(인천일보02(경기판))
◈ 市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슬그머니 상업 공모(국제신문10)
◈ 인천 GTX '송도~당아래~잠실' 달리나(경인일보2)
◈ [새벽메아리]호남고속철 개통 효과와 과제(전북일보15)
◈ KTX호남선 김제역 없어져 주민 불편(한겨레11A)
◈ "부끄럽지 않도록 작품활동 정진"(대전일보20)
◈ 부부산서 베를린까지 1만4400km… '통일의 꿈' 이 달린다(동아일보2)
◈ 中, 안데스 횡단철도 추진(조선일보18)
◈ 철도공단,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사' 2015년말 공사완료
◈ (헤럴드경제,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머니투데이,서울경제, 충청일보,대전투데이,아주경제 외)

2015. 05. 21. (목)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8월 착공(강원일보1,3)
◈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충청투데이22,대전일보20)
◈ 단양군 중앙선 폐철도 다시 태어난다(충청투데이16A)
◈ 청주역~옥산 도로확장 순항(충청투데이2)
◈ 옥골 → 송도역세권 개발구역 명칭 변경(인천일보3)
◈ 고가화 논란 경원선 토지보상 절차 돌입(경인일보21)
◈ 남원 열차 이용객 크게 늘어(전북일보9)
◈ 비좁고 좌석 많은 구형 대체 투입 논란(국민일보11B)
◈ 지반 침하 울산 태화강역, 신축 여론 거세(국민일보11B)
◈ 최경환 "잘못하면 뛰는 일본 · 기는 한국 신세 될 수도"(서울신문6)
◈ 임금피크제가 마술봉?…"정년 늘리면 청년채용 여력없어"(동안일보10)
◈ 철도공단,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 용지보상 착수...5월말부터 토지보상절차 진행 (헤럴드경제,뉴스원, 연합뉴스,서울경제,국제뉴스, 파이낸셜뉴스)
◈ 철도공단 강원본부, 지반침하 취약구간 안전점검(news1)
◈ 청주시, 옥산~청주역 도로 확포장공사 연내 착공(news1)
◈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올해 말 개통' (news1,아주경제,국토일보,인천일보,뉴스토마토,OBS,노컷뉴스)
◈ 한국 철도운영 기법, 인도에 전수(연합뉴스,글로벌이코노믹, 국민일보)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1사1촌 농촌마을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아주경제,국제뉴스, 이뉴스투데이, 충청투데이,대전투데이)

2015. 5. 22.(금)
◈ 홍성~화성 고속철 연결(서울 12)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여의도~홍성 1시간(한겨레 18)
◈ '홍성~경기' 복선철 첫 삽 서해안 철도시대 열린다(중도 02)
◈ 온양 '소골과선교' 4년여만에 첫삽(경상 03)
◈ "경원선 정말 복원되나" 들뜬 주민들(강원 17)
◈ 유라시아 철도 빨리 잇자, 北경제도 살아난다(조선 05)
◈ 천안역 신축 국비확보 '총력'(중도 10A)
◈ [사설]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착공, 연내 결론내야 한다(강원 07)
◈ [사설]호남KTX 수요증가, 땜질식 처방 안된다(무등 19)
◈ 도-도의회 '별내선-진접선 연결' 촉구(인천 03)
◈ 공공기관 기능조정 '실속 없는 성적표'(서울 11)
◈ 소골과선교 착공(NEWSIS)
◈ 철도공단 충청본부, 1사1촌 농촌마을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전개(아시아투데이)
◈ 양평군, 지평 군부대 탄약고 문제 해결 '가시화'(NEWSIS)

2015. 5. 26.(화)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여의도~홍성 1시간(한겨레18)
◈ 서해선 전철복선화사업 첫 삽 떴다(세계일보11)
◈ 서해 복선전철 기공식(충청투데이2)
◈ 홍성~화성 고속철 연결(서울신문12)
◈ 장항선 복선전철 조속 추진 필요(서울경제29)
◈ [사설]서해선 다음은 장항선 복선화다(중도일보19)
◈ 호남KTX 주말 차표 전쟁... "좌석 늘려라"(한겨레12)
◈ 수서역 주변 그린벨트 풀린다(한국경제1)
◈ 올림픽 특수노린 무늬만 지역업체 급증(강원도민일보6,강원일보8)
◈ 중국의 '새 파나마 운하' ...남미에 횡단철도 뚫는다(중앙일보14)
◈ 최고 시속 605km… 中 고속철, 지구촌 질주(국민일보8)
◈ 한국, 두 번째 정회원 도전...회원국 北태도가 변수(동아일보8)
◈ 정부,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확산 추진… 노동계 "원천봉쇄"(동아일보10)

2015. 05. 27. (수)
◈ 이천~충주 '중부내륙철도' 본격화(중도일보12)
◈ 국가 균형발전 핵심 '서해축' 달린다(중도일보12)
◈ 동해중부선 토지보상구간 先 착공(강원도민일보13)
◈ 철마 다시 달린다 … 경원선 복원 8월 착공(강원일보1)
◈ 복선전철 사업' 국비 확보 총력(대전일보2)
◈ 2019년 인천공항~ 강남 지하철 환승없이 바로 간다(한국경제33)
◈ 공항철도 하루 이용객 23만명 돌파(경인일보7)
◈ 석탄일 연휴 전라선 KTX 이용객 급증(광남일보11)
◈ 'KTX 이용객 증가…우리만의 대책 없어'(무등일보2)
◈ [사설]호남선 KTX 예약난, 속히 편수 늘려야(광주일보23)
◈ 정부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 개발" 논란(국민일보12,문화일보13)
◈ 재건축 · KTX역 가시화…대구 서구 재도약 꿈 부푼다(영남일보2)
◈ 여전한 환승 지옥... 447억짜리 '반쪽 驛舍'(조선일보16)
◈ 中, 브라질 투자 약속 '空수표' 논란(세계일보14)
◈ 먼로독트린' 굴레 깨뜨린 브릭스(내일신문10)
◈ 충북도의회, '중부내륙선 충주역~수안보 구간 설계 방향 토론회' (news1)

2015. 5. 28.(목)
◈ 장항선 2단계 개량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2시간 걸리던 홍성~영등포 53분에 간다 (한국경제D05)
◈ KR봉사단 요양원 돌봄 (중도일보13,충청투데이22)
◈ 동해중부선철도 개설 난상토론으로 해법 찾기 (강원일보20)
◈ 강원 '3대 철도' 건설 연내 판가름 전망 (강원도민일보1)
◈ 존폐 기로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삐끗' (한겨레12A)
◈ 野 · 시민사회단체 "폐선부지 상업개발 철회하라" (국제신문1)
◈ 유라시아 국가 철도회사 대표들 "南北철도 연결지지" (조선일보5,매일경제27,동아일보5)
◈ 제동장치 고장 사상서 열차 30분 '멈춤' (부산일보6)
◈ 勞 · 政 '임금피크제' 충돌 (서울신문1)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는 '홀대' (세계일보13)
◈ 87곳 중 통폐합 4곳 불과 기대에 못 미친 구조조정 (한국경제4)
◈ 부산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상업적 개발 최소화" (연합뉴스)
◈ 재건축 · KTX역 가시화...대구 서구 재도약 꿈 부푼다 (영남일보)

2015. 05. 29. (금)
◈ 남북철도 연결에 北 권력 핵심층도 긍정적(조선일보5)
◈ "광주역 존치하되 주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의견 우세(전남일보1)
◈ 방치된 광주역... 몸살 난 송정역(전남일보3)
◈ 고속鐵 조기 착공 성공 올림픽 이끌자(강원일보1)
◈ 얽힌 현안사업, 실타래 풀리나(중도일보1)
◈ 운행 한달만에...대구지하철 3호선 사고 속출(한겨레12C)
◈ 폐선을 더 이상 속이지 마라(국제신문03)
◈ 성과연봉제 확대로 '철밥통' 깬다(문화일보5)
◈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100곳 공개... "경영평가 반영"(문화일보4)
◈ 세월호法에 막혀 롤러코스터 타다...새벽1시 최종 타결(조선일보2)
◈ 노조에 막혀... 발 묶인 고용장관(동아일보4)
◈ 철도공단 충청본부, 관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펼쳐(아시아투데이)
◈ 벌써 10만 방문객...삼척 하이원추추파크 인기(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 다시 불 댕겨(프레시안)

2015. 6. 1.(월)
◈ 유일호 국토장관 "한국 OSJD 가입 지지해달라" (동아일보B04, 세계일보5)
◈ GTX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시민추진단 출범 (경기일보5)
◈ KTX역 복합환승센터 '아웃렛' 가닥 (경상일보1,2)
◈ 2020년 654억 생산 유발 · 관광객 110만명 늘 듯 (전북일보4)
◈ 말로만 "공기업 개혁" … 빚 되레 늘었다 (경향신문18)
◈ 총리 후보 청문 · 국회법 개정안 · 공적연금 개혁... '화약고 6월 국회' (한국일보6)
◈ '날고 뛰는' 중국 · 일본 고속철... '기는' 한국 KTX (KBS)
◈ [단독]국토부, 해외철도건설 수주 적극 지원...'국제철도과' 신설 (news1)
◈ 국회서 호남KTX 논산훈련소역 설치 토론회 (연합뉴스)
◈ 철도공단, '나덕성 교수와 떠나는 첼로 음악회' 개최 (아시아투데이,국제뉴스,아주경제)
◈ 나를 비추는 '청렴거울' …1등 본부 만든다 (브레이크뉴스)
◈ 함께 달리고 싶어 상경했어요, KR마라톤동호회 (건설경제)
◈ 중국 발개위, 지난-칭다오 고속철 사업 승인 (아주경제)

경조사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 양현호 과장의 부친상
□ 발 인 : 2015년 5월 18일

호남본부 재산지원처 이희경 사원 조부상
□ 발 인 : 2015년 5월 20일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문병노 과장 장인상
□ 발 인 : 2015년 5월 26일

경영지원실 경영노무처 이경희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5월 29일

해외사업본부 중국지사 김주섭 차장 장모상
□ 발 인 : 2015년 6월 1일